

世界發明史에記錄된

名發明品 名發明人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前號에서 계속>

고기만두는 중국 삼국시대부터

만두라고 하면 고기만두에서 팔만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만두의 시조는 분식이 주식이던 중국의 삼국시대로 소급된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의 만두는 제갈공이 하인에게 명하여 양육이나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반죽된 밀가루 만두피에 싸서 솥에 찌게 한 것이 고기 만두의 시조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요즘의 팔만두도 역시 당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때의 팔만두는 지금과 같이 설탕을 섞어 빚은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었다는 설이 있다.

포도주는 3,000년전 에집트서

와인으로 알려진 포도주는 3,000년 이전에 에집트에서 자연발효로 양조하여 마셔 왔다.

따라서 술이라고 하면 양주제에서는 포도주가 그 효시로써 와인의

술의 대표사로 통하였다.

그 후 포도주는 그리스를 거쳐 로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구에서 애용되다가 12세기쯤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포도주의 증류법이 발명되었다.

부란디는 포도주의 증류법에서 강한 술로 진화한 것이며, 그때까지의 포도주를 담그는 병은 가죽부대나 쇠뿔이었다. 그래서 저장에 불편을 느낀 나머지 16세기쯤에 자기, 유리병, 콜크마개 등이 고안되었다.

화가를 겸한 발명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하면 모나리자의 화가로서 너무나 유명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발명인으로는 자칫 잊기가 일쑤다.

하지만 그는 1452년 4월 15일에 피렌체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착상이 너무 시대를 앞질렀기 때문에 많은 구상이 과학적 꿈으로 끝난 것이 허다하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키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미 15세기에 기어·피스턴·스프링을 사용한 기계와 자동차·비행기의 원리를 발명하여 현대에 통용되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설계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낙하산은 가르네런이 발명

공중낙하산은 1797년 10월 22일에 프랑스의 앙드레·자크·가르네런이 발명하였다.

그는 프랑스 혁명중에 항의용군에 참가하였다가 포류가 되어 형가리어 부더요묘에 유배되었다.

가르네런은 옥중에서 탈옥을 궁리하였고 방법으로는 높은 성벽을 뛰어 내릴때 낙하속도를 어떻게 약화시키느냐에 착안하였다.

구상한 것이 바람을 안고 퍼지는 커다란 우산을 설계하여 이 우산으로 탈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혁명전은 끝났고 그는 출옥후에도 계속하여 낙하산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그가 최초로 만든 낙하산은 직경 7m의 백포에 32개의 살대를 붙여 꼭대기는 잡아매고 그 아래 1m 가량에 목재 타거를 들리게 했다. 이 같은 낙하산을 기구에 달아 공중높이 띄운다음 그 낙하산으로 뛰어내

- …… 현대는 發明時代이다. 우리의 日常生活과 社會生活에서 發明의 惠澤을 받지 않은……○
- ……것은 없다. ……………○
- …… 한마디로 發明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없다. ……………○
- …… 이 때문에 人間은 보다 새롭고, 다양하고, 눈부신 發明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 ……이다. ……………○
- …… 오늘날 世界의 모든 國家들이 훌륭한 發明人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切實하게 要……○
- ……望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 한편 우리는 수많은 發明중에서 人類의 幸福과 社會 및 世界의 發展에 크게 貢……○
- ……獻한 發明을 「名發明品」, 그 發明을 한 사람을 「名發明人」이라 한다. ……………○
- …… 그러나 名發明品이 무엇이고, 그 發明을 한 名發明人을 알고있는 사람은 흔치……○
- ……않다. 이에 本誌는 世界 發明史에 記錄된 名發明品은 무엇이며, 그 名發明人은 누……○
- ……구인가를 追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記> ……………○

리게 되는 것이다.

그는 900m의 공중에 낙하산을 단 기구를 띄운 다음 기구와 낙하산을 연결한 끈을 끊었다. 이 때 낙하산이 지상을 향하여 떨어지는 순간 낙하산은 큰소리를 내면서 퍼졌고 가르네린은 다소의 충격을 받았으나 대과없이 지상으로 낙하하는데 성공하였다.

기구의 발명은 제지업자

기구의 발명은 프랑스의 제지업자의 아들들이고 기구에 처음으로 타 본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로제이다.

발명자의 이름은 제지업을 하는 아버지의 공장에 종사하던 몽골페라는 형제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불태우는 것이 말은 일이었으나 그들이 종이를 태울 때마다 타고 남은 종이의 재가 높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지대속에 연기를 넣어 공중에 띄워 보았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형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드디어 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1783년 9월 5일에 지대의 공중부상시험 이래 4개월만인 그해 10월에는 기구에 물

리학자가 타고 공중을 나르게까지 되었다.

양산은 프랑스에서 창안

양산은 17세기쯤 프랑스에서 발명되어 집안에서 마차에 탈 때까지 잠깐동안 사용되었다. 그후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영국의 관워라는 사람이 내수성이 강한 본격적인 우산을 만들어 이를 여행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820년경에는 영·독 등지에서 철제살의 우산이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U자형의 홈이 패인 살을 가진 우산은 1852년에 영국의 폭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며, 원래 우산은 없었고 양산으로 역할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 우산으로 쓰이게 된 것이 분명하다.

물에서 에너지발생 발명

미국의 삼 리체박사는 어느 촉매를 처서 열화학적으로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하여 건축회사의 렌드카회사에 50만달러씩으로 특허권을 양도했다. 이 회사들은 가정용 수소발생기와 수소자동차엔진의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두 회사는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촉매의 종류는 알 길이 없다.

한편 소련에서도 승용차에 부착한 소형 반응로속에서 어떤 종류의 금속분을 물에 반응시켜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던 엔진의 주행거리가 개솔린차와 다를 바 없을 뿐더러 배기는 수증기이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르겐은 쿠테시비오스가 발명

악기의 기원은 1만년전으로 소급되지만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두들이는 것이 고작이었고 악기다운 악기를 만든 것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시대이다. 그러나 악기의 발명가명이 악기발명사에 실린 최고의 사람은 기원전 300년의 그리스인 쿠테시비오스이다.

그는 수력을 이용하여 오르겐을 울리는 장치를 발명하였다.

다음은 기원전 100년쯤에 헤논이란 사람이 암네리온이라는 풍차식 오르겐을 발명하였고 로마시대이후의 오르겐은 종교음악의 중심음악으로서 크게 발전하였다. <계속>